화학제품 관세 0%까지 점진 인하

미국 · 일본 · EC 등 G-7 통상회담서 합의…비관세 장벽 제거도

G-7 도쿄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6일부터 통상 4자회담을 가져온 미국, 캐나다, 일본, EC 등 4국 통상각료들은 건설장비 등 주요 공산품 관세철폐 및 인하에 합의했다.
주요 선진국 통상각료들은 이번 회담에서 이들 품목의 관세철폐 및 인하에 합의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타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미국의 섬유류와 유럽의 전자 및 종이제품, 일본의 목재제품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많은 품목의 관세인하 문제를 미해결상태로 남겨놓았다.
특히, EC는 이번 통상회담에서 미국이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전자제품의 관세50% 인하안을 철회하자 EC도 전자제품의 관세인하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.
그러나 다자간 철강협정(MSA)이 체결되면 철강재의 관세를 폐지키로 하는 등 많은 품목에서 조건부 관세철폐 및 인하에 합의했다.
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전체 시장 접근협상 내용 중 50~60%로 이 같은 합의내용이 연말까지 GATT 회원국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.
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의약품 · 건설장비 · 의료기기 · 맥주 등 4개 품목의 관세를 완전철폐키로 했으며 철강재는 MSA협정을 전제로, 그리고 가구 · 농기계 · 주류 등 3개품목은 일부 예외규정을 둔다는 전제 하에 관세를 완전 폐지키로 합의했다.
화학제품은 최저 0%까지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.
합의된 예외규정이나 수출국도 관세인하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조건 하에 관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.
또 이번 회담에서 관세철폐가 합의된 품목과 15%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을 제외한 여타 품목은 추후 협상을 통해 현행 관세율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.
이들은 또 UR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에 있어 서비스교역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보험 · 금융 · 증권 · 건설 · 유통 · 관광 · 소프트웨어 · 및 컴퓨터서비스 등과 컨설팅 · 엔지니어링 · 회계 법률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분야 등 광범위한 서비스교역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.

<화학저널 1993/7/26>